



트웨어가 서로 융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나 사업자 선택 기준은 기존 통화품질 중심에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다양성이나 편리성으로 변화될 것이며, 고객이 한번 선택한 네트워크를 변경하는 것이 국적을 바꾸는 것보다 어려운 시대가 멀지 않은 미래에 도래할 것이다.

신세기통신과 SK텔레콤에는 현재 1,300만명이 넘는 고객이 있으며, 이들 고객은 더 이상 음성통화 중심의 이동전화 고객이 아니라, 신세기통신과 SK텔레콤이 함께 구축해나갈 거대한 무선 네트워크 사회에서 정보화 시대를 살아나갈 회원들이다.

“콘텐츠(Contents)의 시대”가 개막되는 것이며, 신세기통신과 SK텔레콤은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이동인터넷 서비스의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게 될 것이다.

## 2. 2000년 주요 사업계획

새천년을 맞이하여 신세기통신은 “4W-Win 전략”(Wireless/Wireline/Web/Worldwide-Win)을 시행, 기업 Vision인 세계화를 지향하는 초일류 종합정보통신기업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017 이동전화사업 강화 및 기업 인프라 확충, ▲망진화 및 신규서비스 개발을 통한 무선데이터 사업 전개, ▲신규 통신사업 진출을 통한 종합정보통신 기업의 위상 정립 등 3대 전략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신세기통신은 98년 1조 2,841억원의 매출에 8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한데 이어, 99년에도 1조 8,619억원 매출에 세전이익 154억원, 2000년에는 2조 327억원 매출에 세전이익 178억원의 흑자경영이 전망되는 등 기업의 안정적 기틀을 확고히 하고 있다.

국내사업 부문의 경우 2000년 하반기, 최대 144Kbps 수준의 고속 무선데이터 서비스와 이를 이용한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R&D센터를 건립,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에 경영자원을 집중할 것이며, ▲BI 교체 및 재구축, ▲BPR 추진, ▲창조적인 기업문화 정립 등 기업 쇄신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신사업 부문의 경우 SK텔레콤과 함께 IMT-2000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하는 한편, i-TOUCH 017 서비스의 콘텐츠를 첨단화하는 등 시장 선도적 사업자의 위상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 자동로밍을 이용한 세계 CDMA 단일통화권 구축 및 GMPCS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세기통신의 이러한 계획은, SK텔레콤과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됨으로써 더 큰 성과가 예상되며, 예상을 뛰어넘는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 2-1. 이동전화를 통한 인터넷 및 데이터통신 시장 변화

최근 들어 이동전화 가입자의 폭발적 증가와 인터넷 이용의 폭증으로 이동전화와 인터넷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동전화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98년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데이터 전송속도를 향상하기 위한 무선네트워크의 고도화 및 무선데이터 응용 서비스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2000년은 이동전화와 인터넷이 결합된 데이터 서비스 활성화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이동인터넷 서비스가 성공리에 제공되기 위해서는 인프라의 고도화와 함께 유선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는 데이터 요금체계, 무선데이터 단말기의 개발 및 다양하면서도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신세기통신은 이동전화와 인터넷이 결합한 i-TOUCH 017서비스를 99년 12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017 가입자들은 WAP 휴대폰을 이용, 인터넷 검색, 개인정보관리, 정보검색, 채팅, 오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상반기에는 전송 속도가 현재보다 약 10배 가량 향상된 IS-2000(IS-95C)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144k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하며 음성용량도 2배로 증대되기 때문에, 데이터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음성채널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패킷 데이터 전송 및 Dormant 기능을 지원, 사용자는 지금처럼 채널을 점유한 시간 만큼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이용한 데이터의 양만큼 요금이 내게 됨으로써 기존의 무선데이터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무선데이터 및 이동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세기통신은 무선데이터 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i-사업단을 구성하였으며, 사업단을 주축으로 유무선 포털서비스 및 응용서비스 개발, 향후 인프라 고도화에 대비한 고속 무선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 2-2. 지식기반 경제 도래에 따른 신세기통신 전략

21세기는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는 지식경제시대이다. 산업화 사회에서 가치창출의 근원이었던 자본과 노동력은 경쟁우위를 지속시키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한계를 노출할 것이며, 그 자리를 지식이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핵심 지식역량이 필요하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지식역량을 어떻게 관리

하고 활용하는냐에 따라 21세기에는 해당 기업의 가치가 좌우될 것이다.

신세기통신은 21세기 초우량 종합정보통신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식경영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한 가치경영의 구현"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핵심요소로 조직의 지식경영(Knowledge-Based Management), 개인의 지식역량 강화(From Salarymen to Knowledge Workers), 지식흐름경로 구축(Knowledge Hub), 인센티브와 업적평가(Knowledgeocracy) 등을 설정하고 변화를 추구해왔다.

조직의 지식경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IT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다. IT부문은 지식경영의 기본 인프라로 마케팅 및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기본 역할을 맡고 있다. 타사보다 한발 앞선 마케팅 및 투자가 진행되는 것은 데이터웨어하우스, 해지예측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시장과 고객의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지식역량 강화는 지식경영의 핵심 분야이다. 신세기통신은 조직구성원을 신지식인으로 키우기 위해 STI University를 설립, 임직원 개개인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강화하고 통신산업 종사자로서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도록 하고 있다.

지식흐름경로의 구축은 지식을 최소한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으로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전달하고, 그렇게 생성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저장함으로써 핵심 자산인 지식의 회전율을 높이고 기업가치를 고양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신세기통신은 그룹웨어, 문서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인트라넷에 대한 투자비중을 강화했다.

21세기는 지식자원을 누가 더 잘 활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기업가치가 결정될 것이다. 신세기통신은 통신업계에서 지식경영 시스템을 가장 먼저 도입하고 준비한 회사로 평가되고 있으며, 21세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한 회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 3. 기술전망

정보통신의 발달은 20세기의 생활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며,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기존 도보 및 자동차 문화에서 네트워크 문화로의 이행이 될 것이다.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던 사람들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것이며, 영화관 아닌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유료로 전송받아 보게 될 것이다. 편지나 엽서는 e-mail이 대체할 것이며, 신문도 인터넷상에서 구독해 보는 등, 모든 생활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영위될 것이다.

#### 3-1. 통신망의 진화

지난 몇년 동안 통신망 진화에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음성 위주의 서비스에서 데이터 서비스로의 변화 및 고정된 네트워크에서 이동성이 보장되는 Mobile Communication으로의 변화이다. 현재 이동전화 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성 서비스는 앞으로도 서비스의 주요 요소가 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유선 인터넷 서비스의 폭발적 증가를 고려할 경우 이동전화망에서도 무선 데이터나 Mobile Computing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무선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 현재의 IS-95A 시스템을

IS-95B/C 및 IMT-2000 같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할 것이다. 무선데이터 서비스가 발전하려면 유연하고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과, 개방된 어플리케이션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통신망 별로 특화된 독립적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80년대 1세대 무선통신 서비스는 90년대 초 제 2세대에 접어들면서 주파수, 접속방식, 코딩 방식 등에 따라 CDMA 이동전화나 PCS 등 다양한 서비스로 발전한데 이어, 95년 이후에는 디지털 음성 및 중저속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2.5세대 서비스가 등장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유선시스템과 무선시스템의 융합,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른 기본 시스템의 공용화 등을 통해 음성, 데이터,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단일망을 통해 제공하는 제 3세대 서비스가 등장하게 될 것이며, 2010년경에는 광대역통신을 지원하는 제 4세대 서비스로 진화할 것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과거 통신 서비스마다 가지고 있던 고유한 서비스 영역은 다른 서비스에 의해 부분적으로 잠식되거나 유사한 서비스 사이에 통합이 일어나는 추세에 놓여 있다.

통신서비스의 발전을 이동성과 서비스 내용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때, 통신서비스 지역은 전세계로 확장될 것이며, 음성뿐 아니라 텍스트, 화상, 동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게 될 것이다.

제 3세대 이동전화 서비스인 IMT-2000의 목적은 하나의 휴대폰으로 세계 어디에서나 어떤 정보라도 통신할 수 있는 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2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은 이동전화나 PCS의 경우 실내 및 차량이동 환경에서 음성 중심의 14.4kbps 전송

속도를 제공하며, 고정 무선 가입자망인 WLL은 144kbps 정도의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반면, IMT-2000은 실내 2Mbps, 저속 이동시 384kbps, 그리고 차량 이동시에는 144kbps의 전송속도를 보장한다. 이에 따라 이동중에도 영상 전화 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실내 환경에서는 2Mbps까지의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무선환경에서 2Mbps의 전송속도는 향후 수요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충분히 수용함으로써, IMT-2000은 음성, 데이터, 동영상 등을 서비스하는 보편적 이동통신서비스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3-2. IMT-2000 준비 현황

신세기통신은 IMT-2000의 자체 기술 개발은 물론, 다른 기관 및 사업자와의 공동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IMT-2000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인 CPM(Code Position Modulation) 기술을 개발한데 이어, 국제로밍용 시험신호망(GTE TSI)을 구축하고 국제로밍용 S/W를 개발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로밍용 연동시험규격을 99년 9월 CDG에 제안하였다.

국내외 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데이콤과 IMT-2000 추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일본 DDI(제2電電), IDO(일본이동통신)사, 홍콩의 허치슨(Hutchison) 등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앞으로도 IMT-2000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국내외 사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폭넓게 구축하는 한편, 정부정책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제휴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특히 SK텔레콤과 전략적 제휴를 맺게된 것은 IMT-2000사업을 수행하는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세기통신은 96년 "차세대이동통신 기술개발협의회"에 참여한데 이어, 차세대이동통신협의회가 주관한 "표준화 Workshop"과 국회의 "정책토론회"에 참가하는 등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IMT-2000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하기 위해 신세기통신은 99년 5월 IMT-2000 추진본부를 발족한데 이어, 조만간 조직 및 인력을 재정비하여 더욱 강력한 사업 추진체를 구축할 예정이다. 투자재원 확보에 있어서도 기존 이동전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기할 것이다.

지난 몇년간 인터넷 사용량의 증가를 고려할 때, 앞으로 수년내에 무선데이터 서비스가 음성서비스를 전체적인 양적 측면에서 능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한 이동전화 사용자의 욕구 변화는 이러한 예측에 더욱 무게를 실어준다. 신세기통신은 새로운 천년에도 첨단 서비스의 지속적 개발과 성공적 신사업 진출을 통해 고객의 편익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 대 기

- 1960 경기고등학교 졸업
- 1966 서울대학교 법정대학
- 1965~75 조선일보 기자
- 1976~78 동양화학 기획실장
- 1983~87 화담기술 (주) 대표이사
- 1987~92 한겨레신문사 상무이사
- 1992~94 포스데이타 (주) 상임고문
- 1995 포스코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1995. 11. 신세기통신 대표이사 사장 취임